

“완성도에 아주 만족하는 앨범이에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뜨겁던 유자차가 차게 식었다. 노트북을 닫으며 밴드 나이트오프(Night Off)에 물었다. 언젠가 두 사람이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고. “힘들긴 했는데 우리 같이하길 잘했다. 그거 정말 잘 만든 앨범이었지?”(이이언), “형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이능룡)

2인조 프로젝트 밴드 나이트오프는 외출이 허락된 밤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태생부터 외유(外遊)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밴드 못을 이끄는 이이언(43)과 언니네이발관 출신 기타리스트 이능룡(40)의 우연한 만남에서 화학작용이 발생했다. 완벽주의자였던 두 사람은 좀 더 설렁설렁 느슨하게 음악을 해보고 싶었다. 마침 언니네이발관이 지난해 무기한 활동중단에 들어가면서 시간이 났다. 나이트오프는 올해 6월 싱글 ‘리뷰’와 ‘오늘의 날씨는 실패다’를 내며 키오프를 했다.

나이트오프는 지난 11월 30일 첫 EP ‘마지막 밤’을 냈다. 최근 흥대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독한 감기에 시달리면서도 흥겨운 대화를 나누었다.

“완성도에 아주 만족해요. 활동 방식에서 새롭게 접근하고 싶어서 격렬로 싱글을, 마지막에 음반을 냈죠. 띄엄띄엄 공개하다 보니 오래 고민할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사람 욕심에 계속 작업물을 붙잡고 있게 되고, 사실 고생스러웠어요.(웃음)”(이이언)

“앨범 제목이 ‘마지막 밤’이라고 해서 나이트오프 마지막 활동은 아니고요. 첫 번째 시즌을 마무리한다는 뜻을 담았어요. 막연한 기대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서로 떨어져 지내더라도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새



2인조 프로젝트 밴드 나이트오프 ‘마지막 밤’ 발매 6월부터 격월 싱글 발표…첫 시즌 마무리 의미 담아

로운 시대의 아티스트와 협업도 하고요.”(이능룡)

앨범에는 6월 싱글 두 곡과 8월에 낸 ‘우린 매일매일’, 10월에 낸 ‘예쁘게 시들어 가고 싶어 너와’, 신곡 ‘잠’·‘해프닝’까지 6곡이 담겼다.

“우린 매일매일”은 나이트오프가 자신에게 하는 얘기다. ‘말이 없는 것은 말이 없고/ 보고 싶은 것은 보고 싶고/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고’라는 가사가 입가를 맴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나는 질문에 이이언은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염세주의나 비판으로 가는 건 아니다. 힘들어도 우린 매일매일 팬찮게 살아가고, 그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

다”고 답했다.

‘예쁘게 시들어 가고 싶어 너와’에는 ‘너와’라는 단어가 스무번 넘게 반복된다. 가제도 ‘너와’였다. ‘이 미운 세상에 너만이 좋았어/ 해로운 희망을 다 끊고서 예쁘게 시들어 가고 싶어’라는 가사가 마음을 문지른다.

“삶 자체가 기본적으로 피곤하고 비극적이예요. 사람은 결국 죽게 돼 있고 생은 힘겨운 싸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시점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 있거든요. 헛되고 해로운 희망을 품느니 가망 없는 큰 기대는 정리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무언가에 집중하고 살고 싶어요.”(이이언)

한참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사람의 합이 눈에 들어왔다. 한 사람이 말문이 막혀 단어를 고르면 다른 사람이 물 흐르듯 대화를 이어갔다. 서로 오래 관찰하고 배려하면서 만들어진 습관인 듯했다.

이능룡은 “우리의 파동은 평소 잔잔하다. 대신 살짝만 흔들려도 눈치챈다. 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작업하는데, 답장이 없으면 ‘아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구나’ 감이 온다”며 “그러면 서로의 마음에 청진기를 대고 예민하게 주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그렇게 서로에게 집중하는 게 나이트오프의 목표이기도 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서로에게 부속이 되는 음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제가 누군가의 기타리스트가 되거나 이이언이 누군가의 보컬이지 않은, 서로가 만나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의견충돌은 없었다고 묻자 두 사람은 씩 웃었다. 사실 ‘잠’ 녹음 과정에서 처음으로 부딪혔다고 한다. 이이언이 보낸 보컬 녹음본을 들은 이능룡은 데모곡 때 느낌과 너무 이질적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믹싱 일정이 촉박해 재녹음이 불가능했다.

“데모본은 ‘못’이나 ‘이이언 솔로’에 어울리게 감정이 간직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완성본에선 감정을 건어냈죠. 그게 더 나이트오프에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일정 탓에 재녹음하기도 어려웠죠. 결국 능룡이가 양보를 해줬죠.”(이이언)

나이트오프는 이번 앨범 발매 이후 당분간 휴식에 들어간다. 공연 계획은 없다. 농반진반 ‘무대 체질이 아니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능룡은 내년 쫄 솔로 앨범 작업을 고민 중이다. /연합뉴스

V.O.S 김경록 내달 결혼



“지인 소개로 4년간 교제…첫 눈에 호감”

3인조 보컬그룹 V.O.S 김경록(35)이 다음달 결혼한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경록은 내년 1월 12일 서울 강남 한 예식장에서 4년간 교제한 이와 화촉을 밝힌다.

예비 신부는 클래식 피아노 전공자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김경록은 “여자친구와는 지인 소개로 2012년 알게 됐으며, 교제한 지는 4년 정도 됐다”고 말했다.

“여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 눈이 무척 맑아서 호감이 갔다”는 그는

“만나면서는 세심하게 잘 챙겨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한결같아 미래를 약속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김경록이 결혼하면 V.O.S는 전원이 가정을 꾸리게 된다.

지난 2004년 데뷔한 V.O.S는 ‘눈을 보고 말해요’, ‘보고 싶은 날엔’, ‘큰일이다’ 등의 대표곡을 냈다. 2010년 박지현이 탈퇴해 2인조로 활동하다가 2015년 12월 박지현이 다시 합류하면서 완전체로 활동 중이다.

김경록은 지난해 10월 솔로 앨범 ‘김경록’을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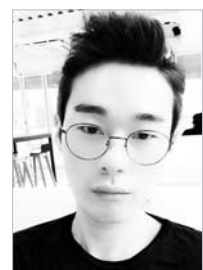
허지웅, 악성림프종 진단 항암치료 시작 홍진영 자매, ‘미우새’ 첫 여성 고정 멤버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39)이 악성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지웅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혈액암의 종류라고 한다”며 “붓기와 무기력증이 생긴 지 좀 됐는데 미처 큰 병의 징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까지 이르는 몇 주 동안 생각이 많았다”며 “그나마 다행인 건 미리 약속된 일정들을 모두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어제 마지막 촬영까지 마쳤다. 마음이 편하다”고 덧붙였다. 허지웅은 현재 tvN 예능 ‘아모르파티’에 출연 중이다.

허지웅은 이어 “지난주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했다”며 “‘버티는 삶에 관하



여’(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함께 버티어나가지’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삶이란 버티어내는 것 외에는 도

무지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끝까지 지키고 싶은 문장 하나씩을 담고, 함께 버티어 끝까지 살아내자.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영화평론가와 작가로 주로 활동하는 허지웅은 JTBC ‘셀전’과 ‘마녀사냥’, SBS TV ‘미운 우리 새끼’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시청자 사랑을 받았다. /연합뉴스

오는 23일 방송 예정

가수 홍진영이 SBS TV 간판 예능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 언니, 어머니와 고정 멤버로 합류한다. 그의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가 12일 밝혔다. ‘미우새’ 여성 고정 멤버는 홍진영이 처음이다.

홍진영과 그의 언니 홍선영은 지난달 18일 ‘미우새’에 출연해 흥이 넘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다. 두 사람 출연 후에는 두 사람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고정 멤버로 합류한 후에는 자매의 어머니까지 출연, ‘홍자매’ 매력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인지 확인해



홍선영(왼쪽)과 홍진영.

볼 기회가 될 전망이다. 자매의 고정 합류 첫 방송은 오는 23일이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교통 사망 사고 황민, 실형 선고 과거 무면허운전 전력도…징역 4년6개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씨(4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

허 운전 전력에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크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km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우도환, 홍콩·태국서 단독 팬미팅 개최



배우 우도환(26)이 홍콩과 태국에서 단독 팬미팅을 연다.

12일 우도환 소속사 키이스트는 우도환이 내년 1월 19일 홍콩, 2월 2일 태국에서 팬미팅을 개최해 아시아 팬들과 만난다고 밝혔다.

우도환은 지난 8월 데뷔 후 처음으로 일본에서 팬미팅을 열었다.

2011년 데뷔한 우도환은 영화 ‘마스터’, 드라마 ‘구해줘’, ‘매드독’, ‘위대한 유혹자’ 등에 출연했다.

소속사는 “우도환의 출연 작품이 일본, 홍콩, 대만, 태국 등에서 방송되면서 차세대 한류 스타로 관심 받고 있다”며 “태국에서는 ‘매드독’, 홍콩에서는 ‘위대한 유혹자’의 인기가 뜨겁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굽네치킨의 새 모델 박보영(왼쪽)과 차은우.

박보영-차은우, 굽네치킨 새 모델

“러블리·세련된 이미지 브랜드 성격과 잘 맞아”

굽네치킨은 배우 박보영과 아스트로 차은우를 새 모델로 발탁했다고 12일 밝혔다.

굽네치킨은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박보영과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의 차은우가 굽네치킨의 밝고 건강한 브랜드 이미지와 잘 어울려 광고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보영과 차은우는 이달 초 광고 촬

영을 마쳤다. 굽네치킨의 다양한 메뉴와 함께한 광고는 이달 중 TV와 공식 SNS 채널, 유튜브 등을 통해 선보인다.

박보영은 내년 상반기 tvN에서 방송할 드라마 ‘어비스’(가제)를 준비 중이며, 차은우는 오는 22-23일 아스트로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앞뒀다.

/연합뉴스